



2013년 1월 17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공기업도 생산성이 우선시되는 시대

• 경제분석

미국 소매판매 호조, 소비 회복 지속 가능성 점검

• 이머징마켓 동향

중국증시 차익실현으로 사흘 만에 약세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LG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농심 외 5종목

• 기업분석

현대차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유가증권	구분		01/09(수)	01/10(목)	01/11(금)	01/14(월)	01/15(화)	01/16(수)
	종합주가지수		1,991.81	2,006.80	1,996.67	2,007.04	1,983.74	1,977.45
	등락폭		-6.13	14.99	-10.13	10.37	-23.30	-6.29
	등락종목	상승(상한)	379(9)	473(12)	372(9)	421(19)	264(11)	346(13)
		하락(하한)	429(1)	308(3)	444(0)	385(1)	538(2)	468(3)
	ADR		106.15	108.17	108.57	109.49	104.03	99.52
	이격도	10 일	99.53	100.16	99.58	100.00	98.90	98.85
		20 일	100.04	100.67	100.06	100.47	99.29	99.03
	투자심리		50	50	40	40	30	20
	거래량	(백만 주)	598	495	467	450	542	453
(십억 원)		3,944	4,471	4,364	4,280	4,376	4,228	
코스닥	코스닥지수		511.94	514.48	515.42	513.44	508.02	507.68
	등락폭		2.93	2.54	0.94	-1.98	-5.42	-0.34
	등락종목	상승(상한)	483(7)	508(5)	451(11)	387(11)	293(14)	413(17)
		하락(하한)	421(0)	408(1)	469(1)	558(1)	626(3)	522(1)
	ADR		109.29	109.87	110.83	112.58	107.51	102.22
	이격도	10 일	102.59	102.47	101.99	101.17	99.88	99.69
		20 일	104.02	104.26	104.18	103.45	102.12	101.87
	투자심리		80	80	90	80	70	60
	거래량	(백만 주)	494	427	436	438	490	478
		(십억 원)	1,851	1,801	2,045	1,803	1,848	1,949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타
유가증권	매수	2,132.5	1,212.6	876.2	165.1	109.4	234.7	42.6	26.9	248.9	38.8
	매도	2,001.2	1,301.8	910.0	246.7	121.4	215.3	46.8	31.7	224.0	47.0
	순매수	131.3	-89.2	-33.9	-81.6	-12.1	19.3	-4.2	-4.9	24.9	-8.2
	01 누계	553.8	-57.6	-447.5	-256.4	197.0	-465.1	-122.4	-3.0	209.4	-48.6
	13년 누계	553.8	-57.6	-447.5	-256.4	197.0	-465.1	-122.4	-3.0	209.4	-48.6
코스닥	매수	1,790.6	79.0	75.6	12.3	9.7	23.2	4.9	3.2	19.1	22.7
	매도	1,799.8	68.6	82.4	13.1	11.4	20.5	4.3	3.0	24.2	17.1
	순매수	-9.3	10.5	-6.8	-0.8	-1.7	2.6	0.5	0.1	-5.1	5.6
	01 월 누계	-59.1	13.8	57.7	9.0	11.7	28.3	3.5	-1.7	10.4	-12.4
	13년 누계	-59.1	13.8	57.7	9.0	11.7	28.3	3.5	-1.7	10.4	-12.4

공기업도 생산성이 우선시되는 시대

1월 월간 밴드	1,950-2,08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2배
12MF PBR	1.05배
Yield Gap	8.1%P

- ▶ 전력, 가스시장의 비효율제거: 발전단가가 낮은 석탄, 원자력 건설 증가, 전기요금 인상
- ▶ 2013년 예산안: 공기업 지분 매각, 부채 축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됨
- ▶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공기업 지분 매각 등 정책이 실시될 전망

경제성장 초기국면에서
제조업의 생산성 개선속도가
서비스업을 크게 상회한다

■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전력, 가스시장의 비효율 제거

95년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다."라는 표현으로 한국의 현실을 비평했었다.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상기문구는 적합한 표현이다. 경제성장 초기국면에서 수출기업,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빠르게 높아 지지만 내수기업,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수출기업,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개선속도가 느리다. 결과적으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생산성은 수출제조업을 담당하는 "민간기업"의 생산성에 비해 뒤쳐지게 된다.

공기업 생산성 개선방법
민영화 : 생산성은 높은 방식
이나 정치적 반발이 큼

08년 이명박 정부는 민간기업에 비해 뒤쳐지는 공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민영화를 거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반대, 정치적 반발이 커서 산업금융지주, 인천공항 등 큼직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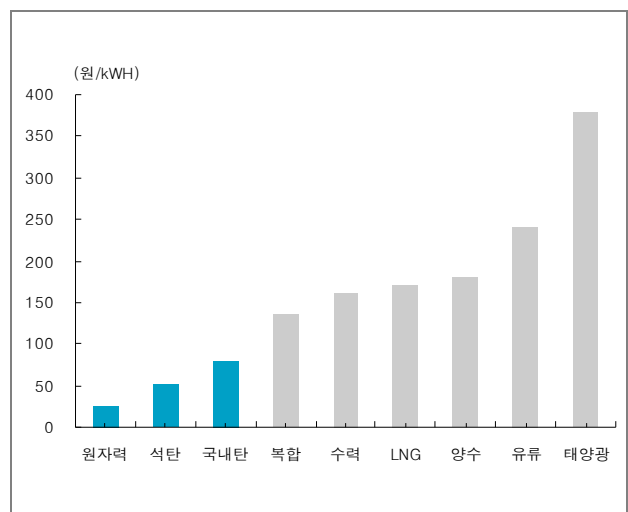
새누리당 대선운동본부는 정치적 반발을 고려해 "국민의 합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표명한 적이 있다. 다만 새누리당 대선공약에서 전력, 가스 시장의 독점구조 때문에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체제가 이끄는 수급시장을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 가스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시장논리(공정경쟁)에 입각한 효율적 운영을 하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해 보인다.

[그림 1]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전력, 가스 등 비효율 제거

새누리의 진단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정부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 ■ 전력, 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초래 ■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으로 전기사용이 불편하고 수요관리 효과가 낮음.
새누리의 약속
■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제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실질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자료: 새누리당 대선공약집,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단가 - 에너지원



자료: 한국전력, 한국투자증권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KDI 남일충 교수의 "13/01/09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에서 조언하는 바와 비슷해 보인다.

KDI 남일충 교수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로도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를 한정하는 시장거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성이 높다고 본다. 즉 수년간 발생한 만성적인 수급위기, 설비 부족 현상의 장기화, 전력 과소비, 한전의 대규모적자 누적,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빈번한 사고의 이유를 경쟁 부재에서 찾고 있다.

KDI 남일충 교수는 전력산업 개편에 있어 2가지 포인트를 강조한다.

첫째, 에너지원에 따라 다양하게 정했던 전기 생산단가를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으로 정해진 시장가격으로 바꾸어야 한다. 일물일가 원칙을 통해 발전단가가 낮은 효율적인 발전소는 이익을 내고 발전단가가 높은 비효율적인 발전소는 손해가 나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한국전력을 판매회사와 송배전회사로 분리해 판매회사를 여타 민간기업과 경쟁시킨다. 낮은 소매전기요금은 차츰 정상화한 이후 시장자율에 맡기고 전기요금규제는 담합, 가격조작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일부 가격상한규제에 한한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 석탄발전소 건설이
권장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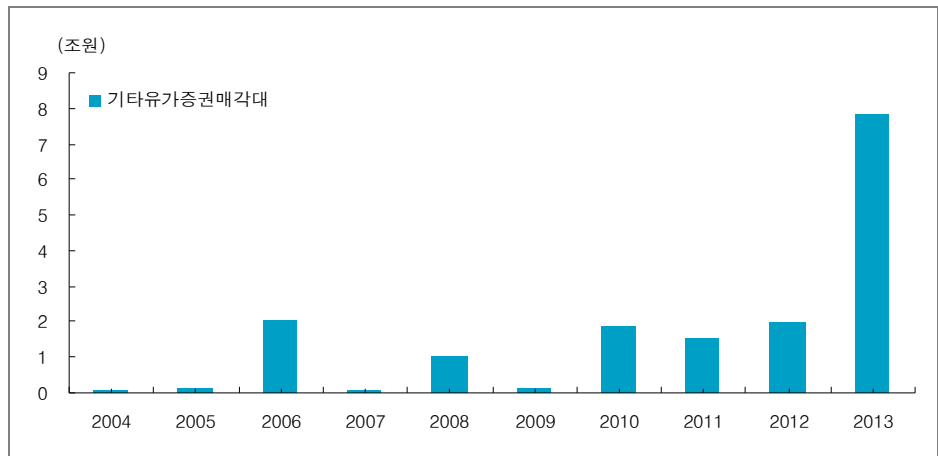
발전 단계와 판매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박근혜 당선인 5년 임기동안 현실화된다면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 석탄 등 건설수주는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한국전력의 낮은 전기요금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 2013년 예산안: 공기업 지분 매각, 부채 축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국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서
기타유가증권 매각대를
예년보다 훨씬 높은
7.8조원으로 결정

2013년도 예산안에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 가능성이 높게 반영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년 11월에 발간한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 기업은행 및 산은금융지주 매각대 과다계상을 이유로 기타유가증권매각대를 8.2조원에서 하향 조정할 것을 권장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서 인천공항 매각대 0.44조원만을 제외처리했을 뿐 기타유가증권매각대를 7.8조원으로 유지했다.

[그림 3] 연도별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예산 추이: 13년 공기업지분 매각규모가 큰 상황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투자증권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상화 측면에서 산은금융지주 IPO 등 민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에서 분리되면서 한국도로공사, 산은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식을 자산으로 받고 고금리의 산금채를 부채로 이전 받았기 때문에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없이는 영업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 분사발표 이후 분리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부각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전체를 매수할 여력이 있는 주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카드 등 자회사를 분리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정치적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무난한 민영화가 어렵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을 위해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다수당임에도 국민감정을 고려하면 의결 가능성이 낮다.

〈표 1〉 정부, 공기업의 지분현황

(단위: %, 억원)

종목코드	종목명	대표주주	지분율	규모 (억원)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90.3	147,638
	산은금융지주	기획재정부	9.7	15,932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100.0	92,518
A006800	대우증권	산은금융지주	43.0	16,226
A047040	대우건설	한국산업은행	51.5	20,370
A042660	대우조선해양	한국산업은행	31.3	17,470
A011780	금호석유	한국산업은행	14.1	5,202
A003410	쌍용양회	한국산업은행	46.4	1,959
A073240	금호타이어	한국산업은행	12.1	1,742
A028670	STX팬오션	한국산업은행	15.0	1,722
A024110	기업은행	기획재정부	68.6	43,823
A033780	KT&G	기업은행	7.0	7,518
A053000	우리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	57.0	55,104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100.0	136,218
	경남은행	우리금융지주	100.0	14,437
	광주은행	우리금융지주	100.0	9,763
A005940	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37.9	8,647
A015760	한국전력	한국정책금융공사	30.0	65,179
A015760	한국전력	기획재정부	21.2	46,071
A036460	한국가스공사	기획재정부	26.9	16,174
A036460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24.5	14,707
	한국철도공사	국토해양부	100.0	87,230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해양부	100.0	36,178
A047810	한국항공우주	한국정책금융공사	26.4	6,307

주: 상장기업의 규모는 지분율*시가총액, 비상장규모의 규모는 지분율*장부가액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Fnguide 한국투자증권

Appendix

－ 전주 주요일정

날짜	국가	내용
01/10	미국	애플 부사장 필설러, 저가 스마트폰은 애플의 미래가 아니다라고 발언, 루머로 부각된 저가형아이폰 개발설 부인
01/11	한국	금통위, 1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 컨센서스와 부합, 다만 일부는 원화 강세를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 전망했었음
01/11	한국	한국은행, 한국 13년 GDP성장을 전망치를 3.2%에서 2.8%로 하향, 유로존 재정위기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표명
01/11	한국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 원달러환율이 1,060원 하향돌파, 원화 강세로 인해 KOSPI 수출주 등 약세
01/11	한국	대상, 전분당 등 판가 인상 효과에 힘입어 52주 신고가 경신, 제품 가격 인상에 힘입어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성장할 전망
01/11	한국	대웅제약, 원료가 인하 및 보톡스 바이오시밀러 상업화로 인해 주가 상승 지속, 제약업종에 대한 관심 높아짐
01/11	한국	에스엠, 8.47% 상승, 소녀시대 4집 I Got A Boy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1위 달성
01/11	한국	엔달러환율, 연초 86.655엔에서 11일 88.905엔으로 급등, 원달러 환율은 1063.5원에서 1,054.7원으로 하락, 원화 강세 두드러져
01/11	중국	중국 12월 CPI 2.5%, 7개월내 최고치, 예상치 2.3% 상회, 28년만에 강추위로 채소값 등 식품품 물가 상승
01/11	스페인	스페인 국제 10년만기 국제 금리 5% 하향 돌파, 12년 3월 이후 최저치, 스페인 정부 첫 국제 입찰 호조
01/11	미국	무역수지적자 12월 487억 달러, 11월 421억 달러, 예상치 411억 달러 상회, 수입 3.8%로 수출 1% 상회
01/11	미국	웰스파코, 4분기 순이익이 24% YoY, 사상 최고치, 대출수요를 상회하는 예금 증가로 순이자 마진 감소
01/12	중국	베이징 등 중국 북부, 중부도시, 최악의 스모그,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의 측정치 12일 오후 886 μ g로 기준치 300 μ g 크게 상회
01/12	미국	재무부 성명, 재무부와 연준은 부채 한도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금동전 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01/12	미국	미국 50개 주 중 47개가 독감 유행함, 100여명 독감 사망자 발생, 뉴욕주도 12일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01/13	한국	현대자동차그룹, 피터 슈라이어 기아자동차 사장을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사장으로 임명, 디자인역량 강화
01/13	한국	마힌드라그룹, 무급휴직자 복직, 평택공장의 잔업, 특근을 15일부터 재개 예정, 경영정상화 기대 높음
01/14	한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에 부동산종합대책을 요구, 주택관련 세제, 금융규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 검토중
01/14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 전력산업 구조 개편 방침, 한국전력을 송·배전회사와 판매회사로 분할, 전력판매시장에 민간기업 진입 허용
01/14	한국	SKT, 영업정지를 앞두고 11~13일 아이폰 19.9만원 2년약정 저가판매, 61.5만원 보조금 추정됨
01/14	한국	웅진홀딩스 관리인, 11일 법원 승인에 따라 웅진케미칼 지분 46.3% 매각 작업을 추진할 계획
01/14	한국	사프, 재팬디스플레이 등 일본패널업체, 아이폰5 판매 부진으로 1분기 납품규모 절반으로 축소될 예정
01/14	한국	넥센타이어, -7.14%, 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3거래일 연속 약세, 글로벌 타이어 수요 부진
01/14	미국	애플, 3.57% 급락한 501.75달러로 마감, 2012년 2월 이후 최저치, 아이폰5 부품 주문 축소 등 반영
01/14	미국	세계 3위 PC업체 Dell, 사모펀드회사들과 인수 협상 중, M&A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
01/14	미국	버냉키 연준 의장, 장 마감후 4시에 QE3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통화정책 일관성 유지될 전망
01/15	한국	KT&G, 담배세금 인상과 함께 판매가격이 동반 인상될 가능성 높음,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 유입
01/15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IT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애플 주가 급락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함
01/15	중국	중국 12년 신재생에너지 투자 667억달러, 20% YoY로 1위, 선진국보다 이머징 중심으로 투자 확대되고 있다고 FT 보도
01/15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부총리제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01/15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 중소기업청 중견기업 정책 등 직무 확대
01/15	미국	애플, 485.84달러, -3.17%, 11개월만에 500달러 하향돌파, 아이폰5의 예상보다 부진한 판매 반영
01/15	미국	12월 소매판매 0.5%, 예상치 0.2% 상회, 재정절벽에도 소비 호조, S&P 소매업종 지수 2.1% 급등
01/15	미국	Fitch, 미국이 채무한도 상향 조정한다 해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
01/15	미국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검색 엔진 Graph Search를 공개, 웹 기반의 콘텐츠 검색이 아닌 SNS 정보 검색 위주임
01/15	미국	세계 3위 PC업체 Dell, 최소 4개 은행들이 파이낸싱 제공 의사를 표명, 매각 규모는 190억 달러 수준
01/16	한국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명목GDP터캣팅은 한계가 있음, 데이터취합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움
01/16	한국	대통령 인수위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수혜주로 꼽히는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업종 강세
01/16	한국	한진중공업, 노사관계 불확실성, 유상증자설로 인해 주가 급락, 여타 조선업종 대비 하락세 두드러짐
01/16	한국	D램익스체인지, 주요 D램 고정거래가 전달말 대비 10.84% 상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PC용 D램 생산 축소
01/16	한국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민영화 무산 가능성 부각, 청주공항관리(주)는 납기일인 15일까지 인수대금 미납부
01/16	한국	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미디어(ICT) 정책 기능 집중을 지지함
01/16	중국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 거래 및 소유권을 포함하는 부동산세 징수 확대할 계획
01/16	중국	인터넷 애플스토어, 중국시장에서 24개월 할부 제공, 12개월 미만은 무이자로 제공, 중국내 프로모션 강화
01/16	중국	12월 FDI -4.5% YoY, 중국 노동비용 상승으로 FDI 투자 감소 불가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반사이익 얻음
01/16	일본	15일 아미리 아키라 일본 경제상, 엔화 약세가 과도하게 계속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발언
01/16	일본	일본 니케이 -2.56%, 엔화 약세 속도 둔화로 캐논, 도요타, 혼다 등 수출주 약세, 차익실현 물량 출회

미국 소매판매 호조, 소비 회복 지속 가능성 점검

- ▶ 미국 12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5% 증가해 시장 예상 상회, 직전 2개월치도 상회
- ▶ 재정절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 회복 흐름 이어져
- ▶ 계획적 소비'를 하는 미국인들, 양호한 소득 여건 감안 시 완만한 회복세 지속될 것

■ 미국 12월 소매판매 예상외 호조

미국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해 예상 외 긍정적 결과를 보여줬다. 소매판매를 통해 본 미국 소비 경기는 10월말 허리케인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빨리 반등하고 있으며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12월 수치가 0.1~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은 물론 직전 2개월 수치도 소폭 상회 조정됐고, 2) 변동성이 크고 시세에 민감한 자동차 및 휘발유 판매를 제외한 소매판매도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가 하락으로 판매금액이 줄어든 휘발유 판매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매판매가 늘었으며, 주택용 가구 판매, 요식업 매출, 의류 판매 등에서 개선 폭이 컸다.

〈표1〉 미국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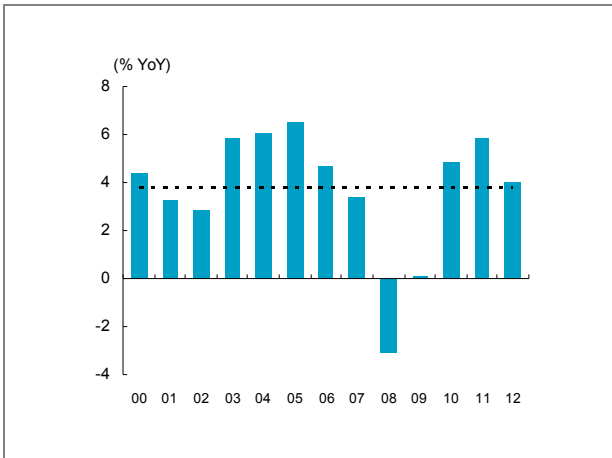
(% MoM)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전체	-0.1	-0.7	0.7	1.0	1.2	-0.2	0.4	0.5
자동차/휘발유외	0.0	-0.4	0.9	0.1	1.0	-0.2	0.6	0.6
자동차및부품	0.8	-0.4	0.1	1.8	1.9	-1.6	2.7	1.6
주거용가구	2.1	-0.7	1.1	-0.4	0.0	-0.4	1.0	1.4
전기전자제품	1.2	-1.4	1.4	-1.9	2.9	-1.7	2.3	-0.6
주유소	-2.2	-3.5	0.5	6.0	1.9	2.3	-4.5	-1.6
의류및장신구	0.9	0.7	0.7	0.3	0.5	-0.3	0.2	1.0
요식업	-0.3	-0.4	0.4	0.0	1.1	0.4	1.2	1.2

자료: 미국 상무부

■ 연말 쇼핑 수요는 강하지 않았지만 재정절벽 불확실성 고려하면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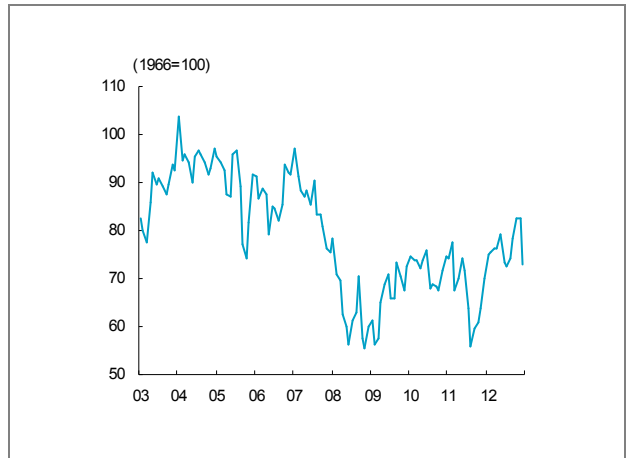
11~12월 소매판매(국제 상품가격 변동에 민감한 가솔린 판매 제외)를 합산해서 전년 동기와 비교한 연말 쇼핑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해 직전 해에 비해 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거 평균치(3.7%)와 비교하면 나쁜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1) 10월말 허리케인의 부정적 영향이 11월초까지도 지속됐던 점, 2) 12월 재정절벽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던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11~12월 소매판매의 전년 동기비 증감율



자료: 미국 상무부, 한국투자증권

[그림2] 미국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자료: Thomson Reuters

■ 단기적으로 세금 증가 부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소비 저해할 요인 아님

연말 미국 내 불확실성을 고조시켰던 재정절벽 이슈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타개책으로 합의된 방안들에 대한 반발과 재정지출 축소, 연방정부부채 한도 상향 이슈 등 추가 합의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비에는 부담되는 요인이다. 미국민 대다수의 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회보장세 2%의 감면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구간별로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액을 보면 고소득층의 부담이 큰 폭 늘어나는 반면 중·저 소득층의 세 부담은 소득 증가분으로 충당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세금 증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추가 협상 과정에서의 마찰 가능성이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경기 회복세 등 긍정적인 요인들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그 효과는 희석될 전망이다.

〈표2〉 소득 구간별 부담 세액

세전 연 소득	평균 납부세액	소득세 증감	사회보장세 증감	총 세금 부담 증감	가처분소득 증감율
\$1,670,000	\$543,000	+\$50,000	+\$23,000	+\$73,700	-4.4%p
\$250,000	\$63,300	+\$2500	+\$3100	+\$5600	-2.2%p
\$84,500	\$14,900	0	+\$1150	+\$1150	-1.4%p
\$52,300	\$7500	0	+\$680	+\$680	-1.3%p
\$30,000	\$2500	0	+\$367	+\$367	-1.2%p
\$11,300	\$99	0	+\$120	+\$120	-1.1%p

자료: 언론보도 자료 정리

■ '계획적 소비하는 미국인들, 양호한 소득 여건은 완만한 회복세 지속시켜줄 요인

미국 개인들의 소비 여력을 분석해봤을 때 향후 미국 소비 회복세는 완만한 속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1월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개인소득 추이를 보면 2~3분기보다도 오히려 4분기에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 소비의 원천인 소득 부문이 개선된 것은 소비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소비지출 증가 폭은 전기보다 축소됐고 저축은 늘었다. 과거와 같이 부채를 끌어다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늘어난 소득으로 부채를 갚는 데 일부 쓰고, 일부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축하고, 나머지 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을 감안한다면 소비 증가세가 빠른 모멘텀을 보여주기보다는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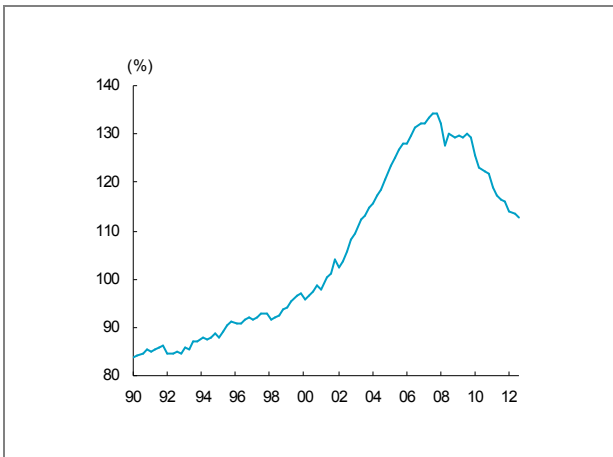
과거에 비해 미국 소비가 수입을 유발하는 정도는 약해졌지만 미국 소비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내부적으로는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전반에 위축됐던 심리가 개선되는 지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반등에 좀더 강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긍정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3〉 미국 개인소득 요인 분해

(USDbn)	3Q11	4Q11	1Q12	2Q12	3Q12	4Q12
민간요인	8.1	12.1	87.0	13.3	20.0	46.9
근로소득	7.0	5.0	69.4	-1.6	18.6	15.6
재산소득	5.3	0.3	6.9	1.9	6.3	4.3
임대소득	4.0	4.7	6.0	0.9	8.6	1.4
이자배당소득	-8.2	2.9	5.1	12.7	-13.2	25.9
정부요인	-1.7	-1.4	-11.2	2.2	4.2	-6.6
이전소득	0.1	4.4	9.9	4.5	9.3	1.2
사회보장보험	0.2	0.3	8.6	-0.8	1.8	1.7
세금	1.6	5.5	12.5	3.1	3.3	6.1
금융요인	45.0	6.0	-19.9	-13.8	30.5	-23.1
이자지출	1.4	-1.4	5.0	-4.6	2.5	1.2
개인저축	-46.4	-4.6	14.8	18.3	-33.0	21.9
개인소비지출	52.7	16.1	61.4	-2.2	57.4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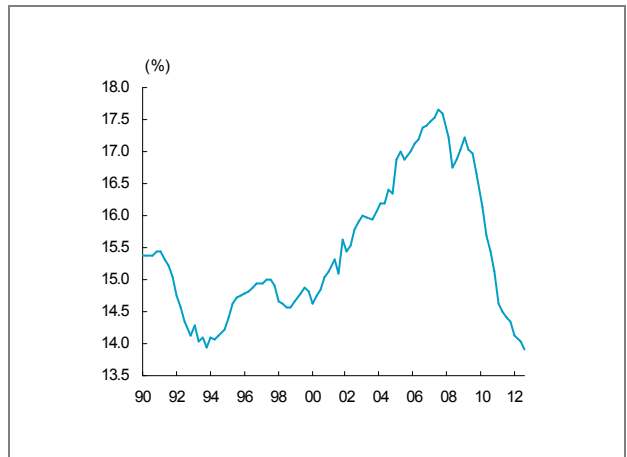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

[그림3]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FRB, BEA

[그림4]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률



자료: FRB

*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중국증시 차익실현으로 사흘 만에 약세

- ▶ 중국 원자바오 총리, 부동산 보유세 제도개혁안 적극 검토 중
- ▶ 중국 리커창 부총리, 도시화는 인위적인 도시건설이 아니라 인구도시화일 것
- ▶ 중국 상무부, 12월 FDI 순유입액 YoY -4.5%,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 (직전 -5.4%)

상해증시 사흘 만에 반락
부동산세 시범확대 우려 및
FDI 지표 악화가 부담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2% 가까이 낙폭을 확대했으나 후반 들어 하락폭을 축소했다. 거래금액은 1,331억 위안으로 직전일에 비해 증가했다. 직전일 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확대됐고 최근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증권, 보험, 건설자재 관련주에 매물이 집중됐다. 원자바오 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제도개혁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급, 올해 부동산세 시범확대 가능성이 재차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주도 동반 급락했다. 중국의 12월 FDI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부진한 수치를 기록한 것도 부담요인이었다. 보험(-2.4%), 시멘트(-1.5%), 증권(-1.4%), 은행(-1.3%), 부동산(-1.1%), 음식료(-1.1%), 석유/천연가스(-0.9%), 신재생에너지(-0.4%), 섬유/의류(-0.2%) 등의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항공(+4.7%), 비철금속(+1.4%), 석탄(+0.9%), 가전(+0.6%), 자동차(+0.6%), 헬스케어(+0.5%), 기계(+0.5%), 화학(+0.4%)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 홍콩 시장

H지수도 약세 전환
미국 채무한도 협상 우려
지속. 본토 증시와 동반
하락

홍콩 H지수도 3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로 향후 홍콩증시의 자금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유지됐지만 피치사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해 채무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또한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으로 올해 부동산세 시범확대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고 중국의 FDI 지표 악화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농업, 보험, 전자, 석탄, 통신, 철강/비철금속, 은행, 석유/천연가스, 유틸리티 등의 업종이 하락한 반면 채굴, 자동차, 유통, 미디어, 가전, 건설, 음식료 관련주는 강세로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16(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09.50	-0.70	1.50	1.78	1.78
홍콩 H	11,907.52	-0.83	0.76	4.12	4.12
인도 SENSEX	19,937.33	-0.25	1.38	2.63	2.63
러시아 RTS	1,569.90	-0.42	0.08	2.81	2.81
브라질 보베스파	61,727.61	-0.57	0.98	1.27	1.27
베트남 VN	465.25	0.83	3.67	12.45	12.45
MSCI 이머징마켓	1,073.48	-0.67	0.04	1.73	1.73

주: 16일 오후 5시 1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5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간 외국인과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약세

- 미국 증시는 여야간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엇갈린 경제지표 및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며 1,996P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하락세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1,970P선에서 마감. 코스닥은 장초반 510선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전일 스마트폰 보안 특허 3건을 취득하며 상한가에 가까운 강세를 보인 안랩이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3'의 미디어 행사인 쇼스타퍼스에서 'V3 클릭'을 선보이며 해외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등. 2013년 긍정적인 실적 가이드스를 발표한 이랜텍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새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기대감에 건설주의 강세가 돋보임. 아울러, 새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소식에 과학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2,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설이 확산되며 한진중공업이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에 유진테크가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안랩 (053800) ▶58,700(상한가)	‘CES 2013’에서 보안 솔루션 ‘V3 클릭’이 호평 받았다는 소식에 초강세 -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3’의 미디어 행사인 쇼스타퍼스 행사에서 개인 PC용 원터치 보안 솔루션 ‘V3 클릭’을 소개해 해외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에 초강세 - 미국향 신제품인 ‘V3 클릭’은 USB 기반 소형 하드웨어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형태의 신 개념 보안 솔루션으로 간단한 사용 및 PC보안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
이랜텍 (054210) ▶8,770(+8.94%)	긍정적인 가이드스 전망에 신고가 경신 - 올해 매출 8,700억원, 영업이익 43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실적 가이드스를 발표하며 신고가 경신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기존 배터리 부문의 케 이스 실적 추가로 외형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건설주	부동산 대책 기대감에 강세 - 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기대감에 강세. 향후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세 폐지 등 고강도 대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경남기업(000800, +11.76%), 쌍용건설(012650, +11.27), 한라건설(014790, +9.84%), 대림산업(000210, +5.15%), 현대산업(012630, +4.16%) 등 강세
과학기자재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식에 강세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키로 했다는 소식에 강세. 미래 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아우르는 부처로 차기 정부의 핵심으로 부각됨 - 대한과학(131220), 영인프린터(036180, 이상 상한가), 서린바이오(038070, +6.64%) 등 강 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LG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LG (003550)	64,200 (-4.2)	67,000 (1/3)	-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LG전자가 휴대폰 부문의 실적 개선, OLED TV 출시 등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며, LG화학도 화학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재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견조한 수익성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를 감안하면 NAV 대비 할인율이 50%에 달하는 저평가 매력에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대양전기공업 (108380)	12,300 (-5.0)	12,950 (1/2)	- 선박용 조명기구 전문회사로 해양 플랜트 조명으로 사업영역 확대. 추가로 군함용 통신시스템 및 배전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센서를 신사업으로 추진 - 주력인 선박 조명과 플랜트, 방산 등 전 분야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용 압력 센서에 대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산화 의지와 맞물려 2013년부터 가시적인 성과 기대
MDS테크 (086960)	14,400 (+6.7)	13,500 (1/2)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 T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 전자회사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동일금속 (109860)	13,200 (-2.9)	13,600 (1/2)	- 크롤러크레인 트렉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트렉슈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템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제로 원가경쟁력
엠케이전자 (033160)	4,195 (-9.6)	4,640 (1/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4,550 (+5.8)	13,750 (1/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농심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농심 (004370)	281,000 (+3.3)	272,000 (1/3)	2,148	133	128	22,127	12.7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LS (006260)	91,500 (-3.7)	95,000 (1/2)	13,604	596	356	12,829	7.1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코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성전자 (005930)	1,492,000 (-5.3)	1,576,000 (1/2)	230,152	34,702	27,841	184,578	8.1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32,000 (+2.0)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17.6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브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296,000 (-2.0)	302,000 (1/2)	3,731	271	264	26,935	11.0
			- 2012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13,500 (-7.8)	340,000 (1/2)	24,430	2,296	1,740	23,666	13.2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현대차(005380)

매수(유지)

목표가: 320,000원(유지)

종가(1/15): 209,000원

중국 모멘텀에 다시 주목

■ 신형 Santa Fe 중국 출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0,000원(12개월 forward PER 10배, 과거 평균치 10% 할증)을 유지한다. 최근 하락한 주가는 강화되는 중국 모멘텀 때문에 '저가매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일 감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SUV의 높은 인기로 12월 출시된 DM Santa Fe는 13년 중국판매 강세 및 믹스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 중국시장이 최대 투자 포인트

11월 현대차 중국공장 판매는 90,888대(+39.7% YoY)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년 현대는 중국에서 855,995대(+15.7% YoY)를 판매하며 4년 연속 미국판매(703,007대, +8.9% YoY)를 능가했다. 중국 승용차시장은 12년 전년 대비 7.1% 성장했지만 13년에도 9.5% 증가한 1,697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중국에서의 반일 감정은 지속되어 현대차가 최대 수혜를 볼 전망이다. 따라서 13년 현대차는 중국에서 950,154대를 판매해 미국판매(790,883대)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에서 웃고 있는 현대차, 울고 있는 일본차

현대차의 중국시장 생산능력 제한에 대한 우려는 7월 중국 3공장 가동으로 해소됐다. 그 결과 중국판매는 7월부터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판매 강세는 MD Elantra의 판매 증가와 DM Santa Fe의 출시로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12월 YF Sonata 판매가 11,910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판매 정상화에 여전히 고전하는 일본업체들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66,985	5,918	7,492	5,567	19,557	88.0	8,073	10.7	9.4	1.8	21.9
2011A	77,798	8,075	10,447	7,656	26,894	37.5	10,410	7.8	7.6	1.5	22.1
2012F	83,649	8,921	11,772	8,629	30,226	12.4	10,888	6.9	6.9	1.3	21.0
2013F	89,657	9,804	13,041	9,559	33,485	10.8	11,847	6.2	6.2	1.1	19.7
2014F	97,751	10,987	14,632	10,725	37,570	12.2	13,115	5.6	5.2	0.9	18.5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1/09(수)	01/10(목)	01/11(금)	01/14(월)	01/15(화)	01/16(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1.81	2,006.80	1,996.67	2,007.04	1,983.74	1,977.45
	등락폭	-6.13	14.99	-10.13	10.37	-23.30	-6.29
	등락종목						
	상승(상한)	379(9)	473(12)	372(9)	421(19)	264(11)	346(13)
	하락(하한)	429(1)	308(3)	444(0)	385(1)	538(2)	468(3)
	ADR	106.15	108.17	108.57	109.49	104.03	99.52
	이격도						
	10 일	99.53	100.16	99.58	100.00	98.90	98.85
	20 일	100.04	100.67	100.06	100.47	99.29	99.03
코스닥	투자심리	50	50	40	40	30	20
	거래량 (백만 주)	598	495	467	450	542	453
	거래대금 (십억 원)	3,944	4,471	4,364	4,280	4,376	4,228
	코스닥지수	511.94	514.48	515.42	513.44	508.02	507.68
	등락폭	2.93	2.54	0.94	-1.98	-5.42	-0.34
	등락종목						
	상승(상한)	483(7)	508(5)	451(11)	387(11)	293(14)	413(17)
	하락(하한)	421(0)	408(1)	469(1)	558(1)	626(3)	522(1)
	ADR	109.29	109.87	110.83	112.58	107.51	102.22
코스닥	이격도						
	10 일	102.59	102.47	101.99	101.17	99.88	99.69
	20 일	104.02	104.26	104.18	103.45	102.12	101.87
	투자심리	80	80	90	80	70	60
	거래량 (백만 주)	494	427	436	438	490	478
	거래대금 (십억 원)	1,851	1,801	2,045	1,803	1,848	1,949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32.5	1,212.6	876.2	165.1	109.4	234.7	42.6	26.9	248.9	38.8
	매도	2,001.2	1,301.8	910.0	246.7	121.4	215.3	46.8	31.7	224.0	47.0
	순매수	131.3	-89.2	-33.9	-81.6	-12.1	19.3	-4.2	-4.9	24.9	-8.2
	01 월 누계	553.8	-57.6	-447.5	-256.4	197.0	-465.1	-122.4	-3.0	209.4	-48.6
	13 년 누계	553.8	-57.6	-447.5	-256.4	197.0	-465.1	-122.4	-3.0	209.4	-48.6
코스닥	매수	1,790.6	79.0	75.6	12.3	9.7	23.2	4.9	3.2	19.1	22.7
	매도	1,799.8	68.6	82.4	13.1	11.4	20.5	4.3	3.0	24.2	17.1
	순매수	-9.3	10.5	-6.8	-0.8	-1.7	2.6	0.5	0.1	-5.1	5.6
	01 월 누계	-59.1	13.8	57.7	9.0	11.7	28.3	3.5	-1.7	10.4	-12.4
	13 년 누계	-59.1	13.8	57.7	9.0	11.7	28.3	3.5	-1.7	10.4	-12.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31,630	전기,전자	-14,952	건설업	18,900	전기,전자	-62,991
서비스업	8,860	유통업	-9,839	금융업	17,578	유통업	-8,579
건설업	3,382	운수창고	-5,961	통신업	15,253	운수창고	-3,837
현대차	9,973	대한항공	-8,257	삼성생명	14,523	삼성전자	-40,091
삼성중공업	7,931	SK하이닉스	-7,490	대림산업	14,165	SK하이닉스	-17,260
대우조선해양	7,782	삼성전자	-7,349	우리금융	10,527	GS	-6,863
LG디스플레이	7,000	현대중공업	-6,799	SK	10,038	한진중공업	-5,158
대림산업	6,291	삼성물산	-4,203	SK텔레콤	9,605	롯데쇼핑	-4,83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1,791	건설업	-1,897	금융업	6,987	화학	-8,762
통신업	1,119	서비스업	-1,836	건설업	5,109	전기,전자	-5,119
운수장비	1,093	음식료품	-1,410	전기가스업	3,393	음식료품	-2,973
삼성생명	1,039	SK	-1,572	KINDEX200	9,897	삼성전자	-4,922
메리츠화재	859	현대산업	-856	LG디스플레이	5,488	KT	-3,938
SK텔레콤	854	오리온	-828	대림산업	5,344	현대백화점	-3,843
현대중공업	814	제일모직	-706	우리금융	5,151	롯데케미칼	-3,111
두산	701	하나금융지주	-624	한국전력	4,652	NHN	-2,493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5,498	전기,전자	-104,259	유통업	18,381	전기,전자	-54,977
건설업	23,508	화학	-25,706	철강및금속	15,292	운수장비	-20,238
통신업	22,442	유통업	-25,511	보험	8,296	통신업	-14,089
대림산업	29,879	삼성전자	-69,478	SK하이닉스	40,838	삼성전자	-54,368
현대차	21,625	SK하이닉스	-33,301	기아차	19,114	LG디스플레이	-26,728
삼성생명	21,394	KODEX 레버리지	-25,790	고려아연	15,171	현대차	-20,701
SK텔레콤	20,086	대한항공	-11,798	롯데케미칼	13,506	LG전자	-18,755
LG디스플레이	18,892	한진중공업	-10,128	삼성전자우	9,063	SK텔레콤	-18,002
우리금융	18,165	GS	-7,955	롯데쇼핑	8,999	현대모비스	-15,105
현대모비스	15,352	롯데쇼핑	-7,634	현대건설	7,160	LG화학	-13,351
한국전력	13,874	롯데케미칼	-6,493	현대백화점	6,570	대림산업	-8,762
KODEX 인버스	11,432	CJ	-6,454	KT	6,311	우리금융	-8,162
대우조선해양	11,373	현대백화점	-6,247	삼성생명	5,526	한국전력	-7,684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2,832	디지털컨텐츠	-1,028
금속	2,355	IT부품	-924
의료,정밀기기	2,266	오락,문화	-726
하나투어	1,701	신타	-994
성광벤드	1,537	이엘케이	-922
오스템임플란트	1,341	컴투스	-774
서울반도체	1,290	디엔에프	-759
KMH	1,135	파라다이스	-69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장비	1,170	반도체	-4,859
의료,정밀기기	1,037	방송서비스	-2,042
음식료,담배	973	IT부품	-1,466
휴맥스	1,170	서울반도체	-3,152
매일유업	973	CJ오쇼핑	-1,579
태광	833	인터파크	-1,164
모두투어	605	씨젠	-1,108
이녹스	566	유아이지	-76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411	반도체	-365
화학	346	금속	-342
소매	204	기계,장비	-247
나노신소재	322	포스코엠텍	-365
CJ E&M	280	실리콘웍스	-274
휴맥스	241	웰크론한텍	-204
제이콘텐트리	204	게임빌	-188
서부T&D	204	파트론	-15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587	IT부품	-1,932
기계,장비	481	반도체	-1,261
화학	371	사업지원	-840
차바이오앤	1,223	파트론	-1,317
메디톡스	753	인터플렉스	-674
SBS콘텐츠허브	609	비에이치	-610
에스에프에이	531	컴투스	-530
나노신소재	489	포스코엠텍	-48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3,883	반도체	-6,833
사업지원	2,769	IT부품	-4,376
금속	2,640	기계,장비	-2,204
CJ E&M	4,286	파트론	-2,916
차바이오앤	2,571	인터파크	-2,682
성광벤드	2,484	서울반도체	-2,602
하나투어	2,456	셀트리온	-2,044
오스템임플란트	2,428	디엔에프	-1,883
이녹스	2,075	인터플렉스	-1,803
휴맥스	1,680	포스코엠텍	-1,584
메디톡스	1,543	웰크론한텍	-1,350
태광	1,414	컴투스	-1,336
매일유업	1,085	파라다이스	-1,27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5,467	제약	-3,244
반도체	3,944	사업지원	-3,058
전문기술	2,836	디지털컨텐츠	-2,105
인터플렉스	3,733	코미팜	-3,506
파트론	3,062	네오위즈게임즈	-3,438
CJ E&M	3,010	하나투어	-3,280
컴투스	1,596	씨젠	-1,459
덕산하이메탈	1,358	안랩	-1,020
셀트리온	1,146	GS홈쇼핑	-931
다음	1,089	태광	-853
서울반도체	921	에스맥	-755
CJ오쇼핑	863	코나아이	-719
동서	721	유진테크	-67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원유선물(H)	19 일	현대건설 32 일
삼성생명		10 일	신도리코 15 일
남양유업		9 일	한국셀석유 11 일
한솔제지		9 일	에스엘 11 일
LG유플러스		9 일	롯데쇼핑 11 일
금호전기		8 일	현대백화점 10 일
대우조선해양		8 일	OCI 9 일
화신		7 일	하나금융지주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20 일	메가스터디 27 일
하나투어		10 일	유진기업 7 일
SBS콘텐츠허브		9 일	셀트리온 5 일
성광벤드		7 일	CJ E&M 5 일
하이록코리아		6 일	포스코 ICT 4 일
오스템임플란트		5 일	인터플렉스 4 일
SK브로드밴드		3 일	모두투어 4 일
태웅		3 일	포스코캠텍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텔레콤	73,925	한국전력	64,744
현대차	70,936	SK하이닉스	53,780
LG디스플레이	67,255	OCI	44,223
삼성생명	54,144	삼성전자	42,789
대우조선해양	46,993	하나금융지주	38,239
한국전력	40,372	현대건설	36,267
KODEX 인버스	36,949	롯데쇼핑	28,231
KT	29,931	고려아연	27,064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하나투어	13,537	다음	9,343
성광벤드	9,740	파트론	8,904
CJ E&M	9,033	CJ오쇼핑	8,724
파라다이스	8,761	인터플렉스	6,340
SK브로드밴드	6,325	CJ E&M	6,144
덕산하이메탈	6,042	진성티이씨	4,345
태광	2,713	셀트리온	3,993
코오롱생명과학	2,563	하이비전시스템	3,286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보험		19,829	8,296 28,125
의약품		2,099	2,717 4,816
종이,목재		1,383	553 1,936
삼성생명		21,394	5,526 26,920
기아차		7,514	19,114 26,628
고려아연		3,216	15,171 18,387
KODEX 인버스		11,432	1,015 12,447
OCI		2,641	3,973 6,614
삼성중공업		5,402	1,189 6,591
만도		1,279	2,572 3,851
SK C&C		2,643	192 2,836
한솔제지		1,472	702 2,174
현대해상		117	1,494 1,611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문기술		1,736	2,836 4,572
의료,정밀기기		3,883	182 4,065
금속		2,640	38 2,678
CJ E&M		4,286	3,010 7,297
차바이오앤		2,571	543 3,114
성광벤드		2,484	208 2,692
오스템임플란트		2,428	18 2,446
이녹스		2,075	264 2,339
나노신소재		709	223 932
빅솔론		462	119 582
제이콘텐트리		514	54 569
모두투어		317	101 417
에림당		382	0 38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SDI	13 일	KODEX 철강	13 일	씨엔케이인터	23 일	하이록코리아	9 일
동부제철	13 일	삼성화재	10 일	인터플렉스	11 일	SK컴즈	7 일
삼성정밀화학	11 일	현대모비스	10 일	메가스터디	11 일	이오테크닉스	6 일
롯데쇼핑	11 일	엔씨소프트	10 일	아트라스BX	10 일	하나투어	6 일
TIGER 200	11 일	외환은행	9 일	포스코엠텍	8 일	다날	6 일
TIGER 증권	10 일	세방전지	8 일	네오위즈게임즈	8 일	쌍용건설	5 일
현대건설	9 일	삼성테크윈	8 일	인터파크	5 일	KCC건설	4 일
삼성물산	9 일	LG디스플레이	8 일	에스엠	5 일	심텍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57,793	LG디스플레이	-123,612	멜파스	-32,884	하나투어	-15,723
KODEX 레버리지	-92,317	SK텔레콤	-49,852	에스엠	-16,586	코미팜	-9,201
현대중공업	-54,314	LG전자	-45,264	인터플렉스	-10,925	네오위즈게임즈	-8,162
현대위아	-48,983	현대차	-40,687	인터파크	-6,307	성광벤드	-5,006
기아차	-39,029	엔씨소프트	-39,613	포스코엠텍	-5,923	메디톡스	-4,124
NHN	-36,244	SK이노베이션	-36,763	STS반도체	-5,133	에스맥	-3,970
삼성SDI	-35,495	삼성화재	-29,429	모두투어	-4,278	에이블씨엔씨	-2,776
현대건설	-34,898	LG화학	-28,012	씨젠	-4,099	씨젠	-2,33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04,259	-54,977	-159,236	디지털컨텐츠	-1,427	-2,105	-3,532
화학	-25,706	-11,122	-36,828	오락,문화	-685	-865	-1,550
운수창고	-8,860	-9,856	-18,716	금속광업	-334	-268	-602
삼성전자	-69,478	-54,368	-123,846	네오위즈게임즈	-175	-3,438	-3,613
LG전자	-4,924	-18,755	-23,680	코미팜	-7	-3,506	-3,513
LG화학	-5,715	-13,351	-19,066	씨젠	-544	-1,459	-2,003
대한항공	-11,798	-860	-12,657	파라다이스	-1,275	-616	-1,891
현대중공업	-5,225	-4,122	-9,347	웰크론한텍	-1,350	-124	-1,475
LG이노텍	-5,279	-3,351	-8,631	멜파스	-758	-483	-1,241
오리온	-580	-6,993	-7,573	안랩	-59	-1,020	-1,078
대우인터내셔널	-635	-6,395	-7,030	에스맥	-109	-755	-863
현대제철	-4,183	-1,708	-5,891	심텍	-753	-36	-790
KT&G	-2,855	-2,497	-5,352	씨엔케이인터	-334	-268	-60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KODEX 200	583	15,496	
LG전자	167	12,346	
POSCO	26	9,499	
현대중공업	32	7,438	
NHN	28	6,571	
삼성전자	4	5,570	
SK텔레콤	32	5,264	
LG디스플레이	187	5,24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네오위즈게임즈	163	3,776	
서울반도체	82	2,095	
심텍	54	510	
중앙백신	33	476	
네오위즈	37	476	
에이블씨엔씨	5	371	
CJ E&M	11	334	
뷰웍스	16	314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862	5,839,976	
POSCO	9,219	3,304,998	
LG전자	39,819	2,926,665	
OCI	9,200	1,692,878	
NHN	3,726	873,791	
현대차	3,794	792,869	
현대중공업	2,800	641,310	
SK하이닉스	22,753	590,44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6,450	681,085	
서울반도체	6,307	159,558	
에스엠	1,736	79,170	
덕산하이메탈	3,063	73,518	
다음	456	46,447	
게임빌	403	42,475	
멜파스	1,825	36,870	
차바이오앤	3,927	36,442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14,062	의료정밀	-67
전기,전자	5,597	섬유,의복	-36
기계	4,078	비금속광물	-35
우리금융	7,409	케이피케미칼	-863
현대상선	3,905	넥센타이어	-747
KB금융	3,886	롯데케미칼	-520
두산인프라코어	3,681	SK네트웍스	-416
KT	2,827	GKL	-329
LG전자	2,639	GS	-297
하나금융지주	2,002	강원랜드	-238
기아차	1,796	현대해상	-203
LG디스플레이	1,405	현대그린푸드	-193
금호타이어	1,396	현대차	-17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1,464	섬유,의류	-289
금융	874	통신장비	-226
제약	826	오락,문화	-84
안국약품	900	케이디씨	-473
한국토지신탁	874	좋은사람들	-295
서울반도체	706	셀트리온	-158
네오위즈게임즈	454	인프라웨어	-125
원익IPS	286	서한	-118
한글과컴퓨터	272	코미팜	-117
주성엔지니어링	262	AJS	-100
휴맥스	230	파트론	-91
서희건설	215	위메이드	-88
차바이오앤	193	파라다이스	-88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10(목)	01/11(금)	01/14(월)	01/15(화)	01/16(수)
외국인	-57.6	-57.6	-417.7	-2.7	-9.0	-92.0	-224.8	-89.2
기관계	-447.5	-447.5	-88.1	-42.3	-154.7	98.5	44.3	-33.9
(투신)	-465.1	-465.1	-66.0	18.2	-14.3	-17.6	-71.7	19.3
(연기금)	247.2	247.2	228.8	33.9	29.9	82.4	57.2	25.3
(은행)	-3.0	-3.0	-29.5	6.7	-17.1	-2.7	-11.5	-4.9
(보험)	197.0	197.0	50.7	77.5	-47.3	2.6	29.9	-12.1
개인	553.8	553.8	529.2	43.5	167.3	3.1	184.0	131.3
기타	-48.6	-48.6	-23.4	1.5	-3.7	-9.6	-3.5	-8.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1/09(수)	01/10(목)	01/11(금)	01/14(월)	01/15(화)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91.81	2,006.80	1,996.67	2,007.04	1,983.74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735.4	18011.7	17685.9	17757.8	18177.3
(증감액)	2735.7	1996.5	3611.7	310.6	276.3	-325.8	71.9	419.5
(회전율)	52.6	51.5	34.2	33.3	35.4	36.8	34.7	34.7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326.0	320.6	-277.7	88.8	567.8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3981.4	4004.7	4025.0	4051.2	4076.7
미수금	240.2	192.3	187.7	170.6	164.5	172.3	153.0	160.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1/09(수)	01/10(목)	01/11(금)	01/14(월)	01/15(화)
전체 주식형	93,714	-777	-777	-4	-55	-43	-104	-162
(ex. ETF)		-892	-892	-69	-60	2	-27	-61
국내 주식형	67,866	-560	-560	21	-29	-22	-85	-143
(ex. ETF)		-678	-678	-44	-35	23	-9	-42
해외 주식형	25,848	-218	-218	-25	-26	-21	-19	-20
(ex. ETF)		-214	-214	-25	-26	-21	-19	-20
주식 혼합형	9,869	-132	-132	-6	-9	-9	-21	-7
채권 혼합형	19,086	-123	-123	-3	0	-3	-33	3
채권형	47,395	90	90	88	89	-2	-71	-16
MMF	73,784	10,665	10,665	-129	-306	1,015	446	98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10(목)	01/11(금)	01/14(월)	01/15(화)	01/16(수)
한 국	-55	-55	138	-3	-8	-87	-212	-83
대 만	-312	-312	532	303	106	-54	-130	-144
인 도	1,778	1,778	451	52	142	185	-	-
인도네시아	294	294	71	-24	-27	48	36	-
태국	254	254	38	-153	-2	66	17	-
남아공	111	111	111	-95	77	-5	-179	-
필리핀	435	435	313	316	15	-23	4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1/09(수)	01/10(목)	01/11(금)	01/14(월)	01/15(화)	01/16(수)
회사채 (AA-)	3.29	3.23	3.19	3.23	3.25	3.21	3.21
회사채 (BBB-)	8.80	8.73	8.69	8.73	8.75	8.72	8.72
국고채 (3년)	2.82	2.75	2.70	2.74	2.76	2.76	2.74
국고채 (5년)	2.97	2.87	2.82	2.86	2.88	2.84	2.84
국고채 (10년)	3.16	3.05	3.02	3.05	3.04	3.01	3.02
미 국채 (10년)	1.76	1.86	1.90	1.87	1.84	1.84	-
일 국채 (10년)	0.80	0.83	0.83	0.82	0.82	0.78	-
원/달러	1,070.60	1,061.70	1,060.40	1,054.70	1,056.10	1,056.50	1,058.70
원/엔	1,243.73	1,214.00	1,204.00	1,182.00	1,178.69	1,188.00	1,200.00
엔/달러	86.08	87.47	88.09	89.23	89.60	88.94	88.24
달러/유로	1.32	1.30	1.30	1.34	1.34	1.33	1.32
DDR3 1Gb (1333MHz)	0.67	0.68	0.68	0.68	0.68	0.68	-
NAND Flash 16Gb (MLC)	1.89	1.90	1.91	1.92	1.92	1.92	-
CRB 지수	295.01	293.97	296.53	296.66	298.12	297.63	-
LME 지수	3,454.5	3,496.3	3,527.3	3,505.3	3,469.4	3,471.8	-
BDI	699	743	751	760	762	765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3.10	93.82	93.56	94.14	93.28	-
금 (달러/온스)	1,663.40	1,655.50	1,678.00	1,660.60	1,660.10	1,683.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월 10일	264.95	266.20	1.31	1.25	1.69	251,395	111,651	-3,528
1월 11일	263.32	264.75	1.28	1.43	1.30	252,772	109,831	-1,820
1월 14일	264.80	266.40	1.22	1.60	1.81	159,835	112,052	2,221
1월 15일	261.43	263.40	1.18	1.97	1.30	226,067	110,724	-1,328
1월 16일	260.49	261.45	1.18	0.96	1.45	185,632	108,917	-1,807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월 10일	483	102	-916	-1,807	1,198	-55	-206	-4
1월 11일	-3,409	222	3,295	2,867	20	243	40	-1
1월 14일	2,255	-229	-2,124	-2,216	261	133	-145	1
1월 15일	-3,589	759	3,330	3,244	37	-158	156	-3
1월 16일	-1,218	717	1,010	120	1,059	-180	-73	6
누적포지션	-13,573	13,362	1,098	4,037	-3,250	484	-381	206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월 10일	770	643	-126	641	634	-7	129	9	-119	4,678	10,247
1월 11일	846	617	-229	653	612	-41	193	5	-188	4,710	10,089
1월 14일	587	803	216	570	780	211	17	23	5	4,710	10,099
1월 15일	1,010	742	-268	845	732	-113	165	10	-155	4,713	9,949
1월 16일	866	696	-170	678	679	1	189	18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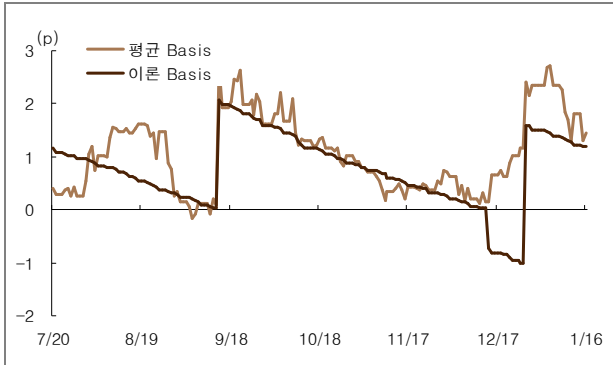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3.56	3,390	115,250	0.41	275.00	14.55	34	-12	15.39
13.56	2,412	132,228	0.67	272.50	12.40	316	-32	15.46
13.63	2,329	136,021	1.07	270.00	10.25	1,392	-41	14.92
13.75	2,570	123,036	1.65	267.50	8.35	3,184	58	14.91
13.83	2,041	29,233	2.42	265.00	6.60	7,884	82	14.78
14.21	1,080	12,531	3.50	262.50	5.10	12,762	-385	14.81
14.34	454	4,472	4.75	260.00	3.95	55,467	703	15.27
14.72	156	1,343	6.30	257.50	2.96	124,358	113	15.53
14.88	170	384	8.00	255.00	2.18	140,013	1,944	15.84
15.09	80	187	9.90	252.50	1.61	102,501	1,203	16.31
15.84	16	53	12.05	250.00	1.18	103,445	960	1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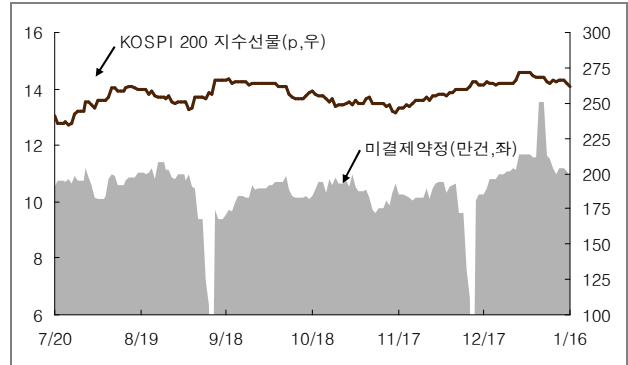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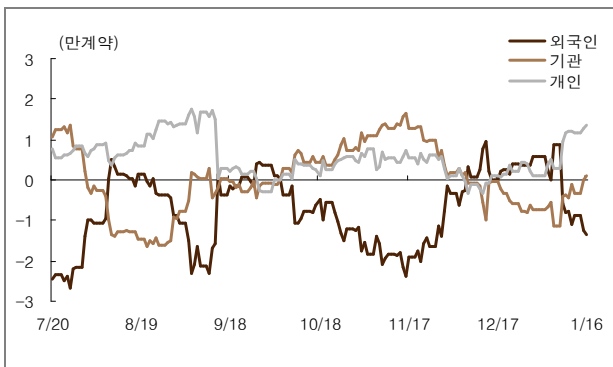
- 평균 Basis: 1.45 (전 거래일 대비 0.15 상승)
- 이론 Basis: 1.18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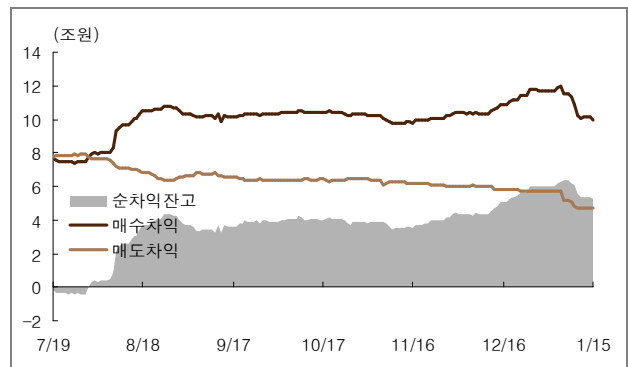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807 계약 감소한 108,917 계약
- 선물가격(261.45): 전 거래일 대비 1.9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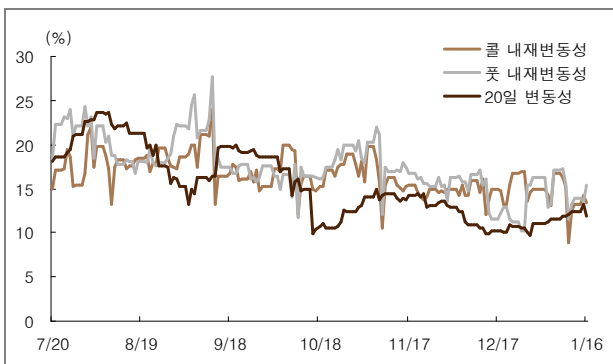
- 외국인: 1,218 계약 순매도
- 기관: 1,010 계약 순매수 / 개인: 717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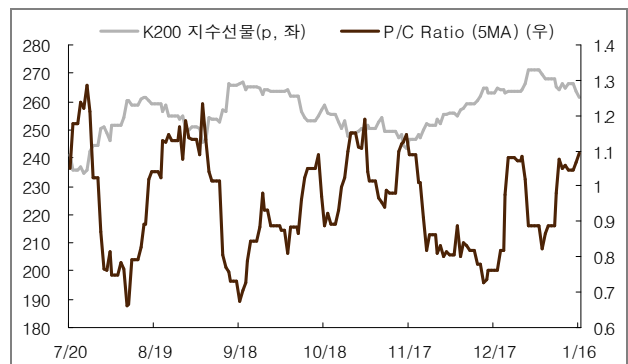
- 차익거래: 1,711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11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3.4% / 풋 15.5%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1.84%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10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7	8	9	10	11
유럽> 1월 섹터 투자자기대지수 (n/a, -14.2, -16.8)	美> 1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88.0, 87.2, 87.5) 11월 소비자신용지수 (\$16.05B, \$12.75B, \$14.16B) 유럽> 11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2.6%, -2.1%, -3.6%) 11월 유로권 실업률 (11.8%, 11.8%, 11.7%)	韓> 12월 실업률 (3.0%, 3.0%, 3.0%)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1.7%, n/a, -10.4%) 中> 12월 수출 YoY (1/10) (14.1%, 5.0%, 2.9%) 12월 수입 YoY (1/10) (6.0%, 3.5%, 0.0%) 12월 무역수지 (1/10) (\$31.62B, \$20.00B, \$19.63B) 12월 신규 위안 대출 (1/10) (454.3B, 550.0B, 522.9B) 12월 통화공급 M2 YoY (1/10) (13.8%, 14.0%, 13.9%)	韓> 12월 수출물가지수 YoY (-6.2%, n/a, -5.5%) 11월 통화공급 M2 YoY (0.2%, n/a, 0.2%)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7.1만, 36.5만, 37.2만) 유럽> ECB 금리 공시 (0.75%, 0.75%, 0.75%) BOE 금리 공시 (0.50%, 0.50%, 0.50%)	韓> 금통위 금리결정 (2.75%, 2.75%, 2.75%) 美> 12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1.5%, -1.6%) 11월 무역수지 (n/a, \$41.3B, \$42.2B) 유럽> (1/11-12) 체코 대선 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5%, 2.3%, 2.0%)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9%, -1.8%, -2.2%) 日> 11월 경상수지 YoY (-276.4%, -84.1%, -29.4%)
14	15	16	17	18
유럽> 11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0.3%, 0.2%, -1.4%)	美> 12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0.5%, 0.2%, 0.3%)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3%, 1.4%, 1.5%) 유럽> 11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11.0B, 8.0B, 7.9B) 日> 12월 통화량 M2 YoY (2.6%, 2.1%, 2.1%) 실적발표> 韓 하나투어, 모두투어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11.7%)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8%, 1.8%) 12월 산업생산 YoY (n/a, 0.3%, 1.1%) 1월 NAHB 주택시장지수 (n/a, 48, 47) 유럽> 12월 유로권 CPI YoY (2.2%, 2.2%, 2.2%) 中> 12월 실질 FDI YoY (-4.5%, -2.0%, -5.4%) 日>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39.2, n/a, 39.4) 실적발표> 美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韓>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n/a, -0.2%)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6.5만, 37.1만) 12월 건축 허가 MoM (n/a, 0.5%, 3.6%) 12월 주택건설 착공 MoM (n/a, 3.3%, -3.0%)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n/a, 6.0, 8.1) 실적발표> 韓 KT&G 美 이베이*, BOA, 씨티그룹	美> 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평가지수 (n/a, 75.0, 72.9) 中> 4Q 실질 GDP YoY (n/a, 7.8%, 7.4%) 12월 산업생산 YoY (n/a, 10.2%, 10.1%) 12월 소매판매 YoY (n/a, 15.1%, 14.9%) 실적발표> 美 인텔*, GE, 모간스탠리
21	22	23	24	25
韓> 12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1.7%) 12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9.1%) 유럽> (21-22)유로존/EU 재무장관회의	美> 12월 기존주택매매 MoM 日> BOJ 정책금리 실적발표> 美 듀폰,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1월 주택가격지수 MoM 유럽>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 (잠정치) 실적발표> 美 IBM*, 구글*, 맥도날드, 애플	韓> 4Q GDP YoY (잠정치)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경기선행지수 유럽> 11월 유로권 경상수지 SA 1월 PMI 제조업(잠정치) 1월 PMI 서비스(잠정치) 中> 1월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日> 12월 수출 YoY 12월 수입 YoY 실적발표> 韓 엘지디스플레이, 현대차 美 넷플릭스, 쓰리엠	美> 12월 신규주택매매 MoM 日> 12월 국내 CPI YoY 실적발표> 韓 삼성카드, 삼성테크윈, 기아차 美 AT&T*, 마이크로소프트*, P&G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